

YANOLJA RESEARCH REPORT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글로벌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글로벌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새로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을 발표하며 전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 정책의 골자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10%의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는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반영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바로 일주일 후인 4월 9일,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 (취임 후 발표한 펜타닐 관세를 포함하면 145%)로 올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10%의 보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0일 이후에는 협상 여부에 따라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강조하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37조 달러에 이르러 지속이 어려워진 정부의 재정적자를 관세 수입 증가를 통해 축소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상호관세가 발표된 직후 글로벌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급락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 가능성을 경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관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상품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파급효과는 서비스 산업, 특히 여행 및 관광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소비자 심리, 그리고 국가 간 교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 환경의 변화는 여행 심리 악화로 인한 관광 수요 감소, 여행관광 산업체의 운영 비용 증가, 나아가 국제관계의 긴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본 브리프에서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한 미국 내 관광산업에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산업과 한국 관광산업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며, 한국 또한 내·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로 관광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가져올 혼란과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글로벌 여행·관광 업계와 각국 정책 결정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본 브리프는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여행·관광산업이 직면하게 될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여행·관광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상호관세가 미국 경제와 미국 내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 전반에 심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우선,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 관세와 국가별 추가 관세는 미국 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Yale Budget Lab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2.3% 상승시켜 가계당 연간 약 3,800달러(약 5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원자재와 완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증가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5년 말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1%를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되고,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물류 지연과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JP Morgan은 이로 인해 2025년 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는 소비자 신뢰도와 지출 의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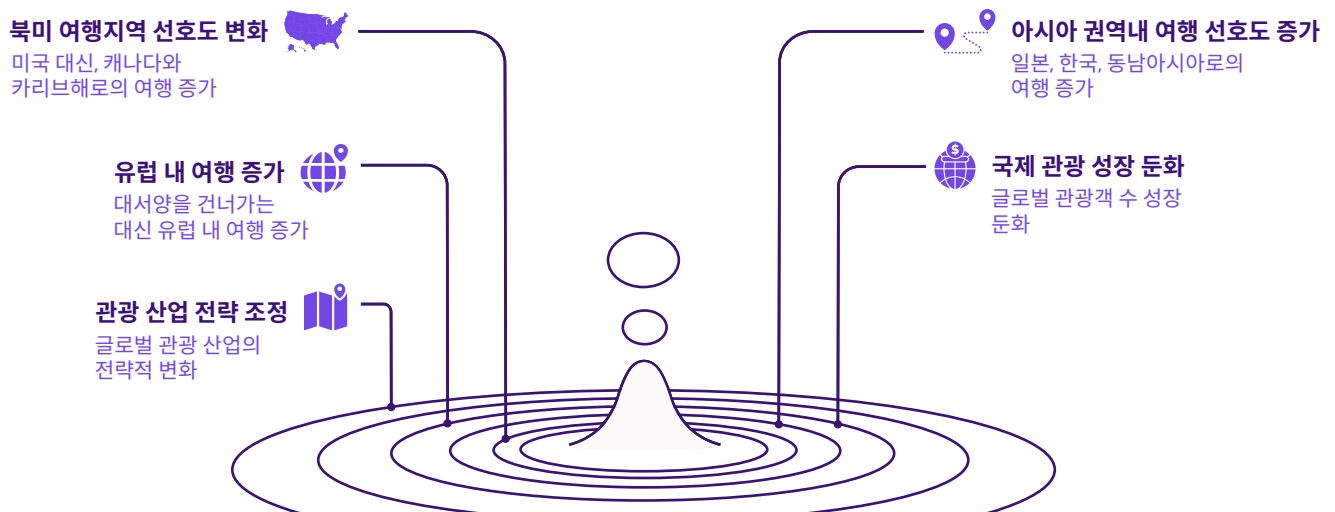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미국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호텔 업계는 건설 자재와 가구, 식자재 등 수입품에 의존도가 높아 운영 비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철강에 대한 관세는 호텔 신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발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멕시코산 식재료나 베트남 및 중국산 가구에 대한 관세가 추가되면, 식음료 가격과 객실 유지비 또한 상승하게 된다. 호텔들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객실 요금 인상이나 리조트 피(Resort Fee) 같은 추가 요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저가 호텔은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수익성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항공산업 역시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항공기 부품과 소재에 대한 관세는 유지보수 및 기재 도입 비용을 높이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 여행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주가 하락과 수익 전망 하향 조정을 경험하고 있다. 델타와 유나이티드 같은 대형 항공사는 2025년 수익 전망을 낮추고 있고, 이는 노선 축소나 서비스 간소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국제 관광 수요의 감소이다.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반영하되, 기존 동맹국들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캐나다와 EU 같은 전통적 우방국에 대한 심각한 관세 부과는 단순한 경제적 조치를 넘어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반미 정서(Anti-America Sentiment)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EU는 미국을 망치기 위해 만들어졌다”거나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논리적인 다음 단계”라고 한 폄하 발언은 상대국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대형마트에서는 미국산 와인을 퇴출하고, 일부 카페에서는 메뉴 속 ‘아메리카노’를 ‘카나디아노’로 바꾸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반발은 “굳이 미국에 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글로벌 관광 컨설팅업체인 Tourism Economics는 2025년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관광객 수가 5% 이상 감소하여, 약 640억 달러(92조 원)의 경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캐나다발 방문객은 15% 감소하며, 연간 2천만 명 이상 방문하던 최대 시장의 이탈은 미국 북부 지역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았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미국 여행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관광산업의 매력을 저하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 글로벌 관광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국제 간 무역 장벽 확대로 인한 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민간의 소득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질적 소득 감소 효과는 가처분 소득 중에서 가장 먼저 줄이려는 비용 항목인 여행 지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글로벌 여행 이동량이 줄면서 관광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관광 수입국인 미국의 경제 변화는 국제 여행 흐름의 재편을 초래하며, 이는 지역화된 관광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즉 소득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로 인한 장거리 여행 비용의 증가와 정치적 긴장은 여행자들로 하여금 멀리 떨어진 국가 대신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목적지를 선호하게 만든다. 북미에서는 캐나다인들이 미국 대신 자국 내 여행이나 카리브해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인들이 미국 대신 일본, 한국, 또는 동남아시아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유럽 내에서도 EU 시민들이 대서양을 건너는 대신 유럽 내 여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즉, **글로벌 관광 수요가 대륙별로 지역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Tourism Economics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중국인의 미국행 예약은 8.4% 감소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 지역내 예약은 5.5% 증가하였다. 이런 변화는 국제 항공 노선망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허브 간 직항 연결보다는 지역 허브를 경유하는 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

##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관광 패턴 변화



글로벌 관광객 총량의 성장 둔화도 우려된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2010년대 중반까지 연 5% 성장하던 국제 관광객 수가 무역전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둔화된 전례를 지적하며, 2025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관광객 감소는 일부 수요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나며 관광 지출의 순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중산층의 신규 여행 수요와 기업의 출장 및 MICE(회의·관광·전시) 수요 감소로 이어져,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의 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

관광수지의 불균형도 심화될 수 있다. 미국과 갈등을 겪는 국가들이 자국민의 해외여행 억제와 국내 관광 장려 정책을 펼치면, 미국의 관광수지 흑자는 줄어들고,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흑자 폭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미국 여행 제한이나 캐나다의 불매운동은 이미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관광을 제한하는 선례를 남길 위험도 있다. 이는 국제 관광 교류의 안정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문화 이해와 소프트파워 증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호텔 체인이나 온라인 여행사(OTA) 같은 업계 플레이어들도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축소되고 동남아나 중동 지역으로 자원이 이동할 수 있으며, 항공 동맹이나 협력 관계 또한 재편될 수 있다.

## 한국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

한국 관광산업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산업에 타격을 주며, 국내 경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참고로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19.7%, 일본이 21.8%, 한국이 44.0%로, 한국은 주변 경쟁국을 보다 수출 의존도가 2배 이상 높다. 아무래도 이들 국가들보다 상호관세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제 성장 둔화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한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869만 명에 달한 해외여행객 수는 경제 불황으로 올해에는 감소세로 돌아서거나 증가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여행은 원화 약세와 현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여행비용이 급등하며 매력을 잃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중산층 여행자들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같은 대체 목적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은 엔화 약세와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2023년부터 한국인 방문이 급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엔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동남아시아 역시 단거리 여행지로 각광받으며, 미국 여행의 일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반면, 원화의 지속적인 약세는 외국인 방한 관광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미국인에게 한국은 저렴한 목적지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인 역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을 더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약 1,637만 명으로 회복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한국이 더욱 큰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국인 방문객은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해 한국 방문 수요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은 미중 갈등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에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야기할 글로벌 경제 침체는 전체적인 방한 수요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글로벌 관광 수요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시아 권역 내 관광에서 상대적 강점을 살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지리적·문화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은 상호관세의 파급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K-컬처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은 예상 이상의 관광객 증가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의 여행을 '마음 편한 대안'으로 여길 수 있다. 더욱이 원화의 약세는 한국을 저렴한 여행지로 만들어 주며, 이러한 흐름을 활용한다면 상호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긍정적 결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한국관광 수요 변화 예상

## 일본인 관광객 증가

일본은 근접성과 원화대비 상대적 엔화 강세로 관광객 증가

## 중국인 관광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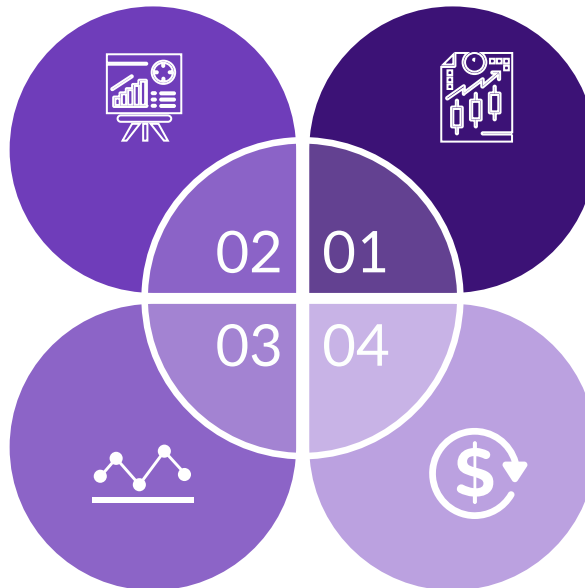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을 선택하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 한국인의 해외 여행 감소 또는 증가세 둔화

경제 둔화로 한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 정체 가능성

## 미국인 관광객 감소

미국 경기 둔화로 한국 방문 미국인 관광객 감소 예상



반면, 국내 관광업계는 운영 비용 상승이라는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호텔은 미국산 식재료나 수입 장비 비용 증가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항공사는 유가 변동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운항 비용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렌터카 업체는 대체로 국산차를 구매하여 운영하는 상황이므로,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관광산업은 인바운드 관광 시장 다변화와 내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더 커졌다.

## 각국의 관광 산업 대응 방안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으며, 여행·관광 산업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맞춰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내 관광 캠페인을 강화하고, 카리브해와 같은 대체 목적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내 여행을 촉진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광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호텔 업계가 국내 자재 사용을 늘리고, 항공사가 노선 재조정과 가격 전략을 통해 비용을 상쇄하려는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전략은 전반적으로 수요 감소를 최소화하고 지역 내 관광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관광산업에 심각한 도전을 안기고 있다. 무역 중심의 국가로서 한국은 수출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가게 소득 감소로 연결되어 해외여행 수요의 감소 또는 위축이 심화될 수 있으며, 국내 여행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즉각적으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는 관광산업에서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며, 정부와 업계의 협력을 통한 변화에의 적응과 혁신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여행·관광 산업 또한 상호관세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항공사와 여행사는 미국 노선의 비중을 조정하고, 동남아,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퍼시픽 지역내 여행상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럭셔리 관광객을 위한 고급 상품 개발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는 '여행주간' 캠페인과 소비 쿠폰을 확대하여 내수 관광을 진작시키고, 관광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마케팅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회복 중인 한국 관광산업이 상호관세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Disclaimer** : 본 보고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조연을 제공하거나, 야놀자의 입장이나 사업전략을 반영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야놀자리서치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하는 것은 금지되며, 동의 없이 본 보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야놀자리서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